

## 광장 집회에 대한 에이전시(agency) 신학 방법론적 분석과 이해

이승규(에이전시 신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I. 들어가는 말

### II. 에이전시 신학의 시대적 문제의식

1. 사회,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도정에서
2. 사회, 문화 변혁에 따른 행동 유형들

### III. 광장 집회의 분석 도구로서 공공신학과 에이전시 이론

1. 광장집회에 대한 공공신학적 접근 방식
2. 광장집회에 대한 에이전시 이론적 접근 방식

### IV. 광장 집회에 대한 에이전시 신학적 분석: 광화문 집회: 태극기 집회 (2019.10.3, 2020. 2.22)와 서초동 집회: 촛불집회(2019. 9.28)

1. 광장 집회 행동에 대한 에이전시 이론적 분석
2. 두 집회에 대한 에이전시 신학적인 조망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6.06>

---

• ABSTRACT •

---

## Agency theological Investigation on Square Rally

Researcher, Seung Gyu Lee (Institute of Agency Theology)

This article has reviewed the divided positions of Gwanghwamun Rally (2019.3.1/2020.2.22) and Seocho-dong Rally (2019.2.28) in the perspective of agency theology. It is wrong that newspaper reporters and TV reporters mislead the public opinion judging their actions on the basis of partisanship. A rational analytical method is needed for a more mature civil society and a healthy square culture. The philosophical agency theory can objectify the subjective individual civilian activities in the re-modernities paradigm. Through such objectification, the doer can carry out self-reflective contemplations and thus actions that are more mature. Public viewers also can be rid of interpreted partisan ideologies and see these square rallies in an ethical and rational way. This article presents the agency theology as: a theology of connection that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civil consciousness; an action theology that distinguishes the right action from wrong; and an apostolic theology that allow for the judgement of such action.

**Key words:** Agency Theology, Public Theology, Connection, Action, Modern, Post-modern, Re-modernities

---

## I. 들어가는 말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모인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정치,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조국 전 장관 퇴출과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이 강하게 충돌한 집회였다. 이런 집회로 인해 광장은 자기 집단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구호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난무한 투쟁장소가 되었고 미움과 증오를 만들어 내는 장소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 현장에 대해 여러 방법론적 분석을 통하여 신학은 자신의 입장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에이전시(agency) 신학<sup>1)</sup>은 광장집회와 같은 사회, 문화적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에이전시 신학은 에이전트들이 행한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들의 행동 가운데 나타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그 광장 집회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신학 역시 참여한 대립으로 치닫는 광장 집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신학은 공론의

1) 에이전시 신학은 미개척 학문분야이다. 필자가 처음으로 에이전시 신학 가능성을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하였고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어떤 학문이든지 자기 세계에 갇히면 독단적인 도그마로 굳어지기 쉽다. 특별히 신학에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왜냐하면, 종종 신앙이 도그마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에이전시 신학은 이러한 계도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신학을 학문의 영역 안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에이전시 신학은 주체와 객체 사이의 과정과 움직임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증명하고 검증해보려고 시도 하였던 에이전시 이론을 차용하여 신학의 영역으로 발전시킨 학문이기 때문이다. 에이전시 신학은 1) 주체(하나님: 신학에 있어서)의 의지를 객체(세상과 사람)에게 연결하며 나르며 중재하는 신학이다. 그리고 2) 주체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구체화 시키는 신학이다. 더 나아가 3) 그 중재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사도성을 가진 신학이다. [Seung Gyu Lee,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gency theology," (Doctoral diss. King's College London, 2015) 그리고, 이승규, "에이전시 신학의 가능성 연구," 『선교신학』 제54집(2019), 241-280.]

장에 함께 모여 사회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대화로 풀어가면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에이전시 신학과 공공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의 학문적 문화적인 영역에서 자행된 주체의 해체는 신학적, 윤리적, 철학적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포스트-포스트모더니즘(post-postmodernism) 혹은 리모더니티(re-modernity)를 향한 문화 현상들 중의 하나가 바로 에이전시 신학이다. 에이전시 신학은 주체성의 회복과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성을 다시 학문과 문화의 중심으로 올려 놓으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가렛 아처(Margaret S. Archer)가 적절히 지적해주었듯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자행된 주체 해체는 곧 “인간성 해체”이며 이것은 “사회적 제국주의”이며 “언어적 테러행위”이고 결코 학문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모순이다.<sup>2)</sup> 그래서, 이런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은 계속되어서는 안 되고 다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모색의 한 방법으로 그녀는 에이전시 이론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sup>3)</sup> 에이전시 이론을 신학화한 에이전시 신학과 시민종교를 앞세운 공공신학은 대규모 광장 집회를 보면서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핵심 열쇠가 무엇이며 어떤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내포되어있는지, 진단하며 분석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신학적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소고에서는 광장 집회에 나타난 사회 갈등 현상의 원인과 발전 과정 그리고 그런 집단행동 속에 담겨있는 정치가들의 의도는 무엇 인지를 밝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공공신학과 에이전시 신학으로 연구

2) Margaret S. Archer, *Being Human: The Problem of Agen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2-24. Archer explains that “the postmodernist denies human subjects any form of external mastery over society’s development and form” (위의 책, 24).

3) 위의 책, 22-34.

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그 정황에 따라 어떤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주요 광장 집회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 공공신학적 방법론과 에이전시 신학적 방법론을 고찰할 것이다. 그 결과로서 필자는 공공신학의 방법론보다는 에이전시 신학적 방법론이 적절하다는 것을 밝힌 후 에이전시 신학의 관점에서 두 광장 집회를 분석하며 제안함으로써 글을 정리하려고 한다.

## II. 에이전시 신학의 시대적 문제의식

### 1. 사회,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도정에서

우리는 시대를 구분할 때, 편이상 고대, 중세, 근현대, 현대 이후, 현대 이후의 이후로 구분한다. 여기서는 특별히 모던에서 포스트모던으로, 포스트모던에서 포스트-포스트모던으로 바뀌는 문화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 보려고 한다.

모던이 가지는 중심적인 특징은 종교 중심적이었던 중세에 비해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되었다는 데 있다. 신학자 바르트(Karl Barth)는 모던의 주요 특징은 모든 판단의 잣대가 바로 인간에게 있다고 하였다.<sup>4)</sup> 문화, 예술, 정치, 건축, 신학 어떤 것이든 그 안에 인간 절대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인본주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고는 주장한다.<sup>5)</sup> 이후에 문화학자 바커(Chris Barker)가 포괄적으로 모던사회의 패턴을 지적하였는데<sup>6)</sup> 바르

4) Karl Barth, *Protestant Theology in the Nineteenth Century: Its Background & History*, Brian Cozens & the Staff of S. C. M. Press and John Bowden (London: S. C. M. Press, 1972), 36-37.

5) 위의 책, 33-79.

6) Chris Barker, *Cultural Studies: Theory and Practice* (London: Sage, 2005), 444.

트는 그 패턴들의 근간에 담겨있는 핵심 원인자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모던시대에는 모든 것이 인간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파괴되고 다시 세워진다는 강한 신념과 인간에 대한 낙관론적인 흐름이 문화를 주도해나갔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포스트모던은 모던의 중심 주제에 대한 회의, 즉 인간 주체에 대한 회의로부터 나타난 사고의 변혁의 시대였다. 즉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주체적 인간이 만들어 놓은 비참한 역사 현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인간의 이성과 주체성 그리고 인간 절대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세워진 문화현상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중심 특징이다. 단적인 예로 푸코는 “바닷가의 모래 안으로 그 모양새가 휩쓸려 사라지듯이 인간이란 주체\*가 지워질 수 있음을 확실히 장담할 수 있다”<sup>7)</sup>고 하였다. 즉 포스트모던의 문화현상에는 주체성의 해체, 이성에 의해 판정된 진리에 대한 거부, 마스터라는 권위에 대한 거부 등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상대성이 강조되고, 필연보다는 우연성이 강조되고 권위보다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는 특징을 띠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심 가치들은 1980년대 이르러 에이전시 학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다.<sup>8)</sup> 대부분의 포스트모던 학자들은 주체성 자체에 회의를 가지고 해체를 시도한 반면, 에이전시 이론은 주체와 객체의 연결이 중요한 주제이고 주체의 행동이 객체화되는 과정에 집중하여 고찰한다. 에이전시 학자는 주체를 폐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다. 알렉산더(Jeffrey C. Alexander)에 의하면 포스트모던에 대한 전 분야에 걸친 거부와 반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집중된다.<sup>9)</sup> 그 이후,

문화 변화적인 관점에서 바커(Chris Barker)는 모던을 인간 주도의 산업화, 자본주의, 세속화, 합리성, 민족국가 등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대라고 정의하였다.

7) Michel Foucault, *The Order of Things: An Archaeology of the Human Science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1970), 387. 위의 직접 인용에서 \*는 역자 삽입.

8) Margaret S. Archer, *Being Human: The Problem of Agency*, 24.

건축가나 예술가 그리고 사회학자 등은 포스트모던 이후 현상에 대해 지적할 때 세컨드 모던(second Modern), 뉴 모더니티(new modernity)<sup>10)</sup>, 혹은 리퀴드 모더니티(liquid modernity)<sup>11)</sup>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12)</sup>

빈첸트(Markus Vinzent)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은 리모더니티(re-modernity) 혹은 리모더니티스(re-modernities)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sup>13)</sup> 그가 생각하는 포스트모던 이후의 세계는 포스트모던이나 모던과의 완전한 단절이라기보다는 그 바탕 위에 형성되어, 모던의 재구성 및 포스트모던의 약점 해결에 관한 문화로 이동이기 때문에 위에서 주장한 포스트모던 이후의 뉴 모더니티나 리퀴드 모더니티 그리고 세컨드 모더니티라는 모호한 문화 규정들보다 리모더니티스가 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sup>14)</sup> 그는 리모더니티스 시대의 중심 특징은 핵심과

9) Jeffrey C. Alexander, "Modern, Anti, Post and Neo," *New Left Review*, Vol. 210 (1995), 86.

10) 참고하라. Ulrich Beck,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trans. Mark Ritter (London: Sage, 1992).

11) 참고하라. Zygmunt Bauman,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2000).

12) 다음 학자들의 글을 참고하라. Andrea Branzi, *Learning from Milan: Design and the Second Modernity* (Cambridge, MA: MIT, 1989); *Weak and Diffuse Modernity: The World of Projects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Milan: Skira, 2006). Heinrich Klotz, *Kunst im 20. Jahrhundert: Moderne-Postmoderne-Zweite Moderne* (Munich: Beck 1994). Ulrich Beck and Cristoph Lau, "Second Modernity as a Research Agenda: Theoretical and Empirical Explorations in the 'Meta-Change' of Modern Socie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56.4, (2005): 525-57; Ulrich Beck and Edgar Grande, "Varieties of Second Modernity: the Cosmopolitan Turn in Social and Political Theory and Research,"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61. 3 (2010), 409-43.

13) Markus Vinzent, "Re-modernity': Overcoming the Divide of Denominations, Religions and Ideological Categories," in: Jürgen Court and Michael Klöcker (eds.), *Wege und Welten der Religionen: Forschungen und Vermittlungen* (Frankfurt: Verlag Otto Lembeck, 2009), 635-45; "Remodernities" (2010).

14) Markus Vinzent, "Re-Modernities: or the Volcanic Landscapes of Religion," *Journal*

변두리 사이를 연결하려는 다리 개념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sup>15)</sup> 빈젠트의 다리 개념은, 즉 변두리에 있었던 사상적, 문화적 독특성들이 다시 핵심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에이전시 신학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객체의 자리에서 주체의 방향으로 또한 주체에서 객체에게로 향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다.<sup>16)</sup> 따라서 필자는 다음 장에서 리모던리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행동 유형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사회, 문화 변혁에 따른 행동 유형들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윌리엄스(Bernard Williams)에 의하면 행동을 분석해보면 그 행동 안에는 행동하는 사람의 정신적인 사고 구조와 그 정신 가운데 소유된 정신적 요소들(mental properties)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7)</sup> 정신적인 사고 구조나 내용들은 행동하는 자가 서 있는 그 사회나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헤겔은 사람의 정신 구조를 형성하는 시대의식이 그 시대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한다고 보았다. 어떤 행동은 어떤 시대에 비난을 받지만 다른 어떤 시대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 발발했던 십자군 전쟁은 당시 시대에는 기독교적 입장에서선 정당한 행동이었다. 물론 회교적 입장에서선 십자군의 파병이 매우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이에 대한 반격으로 피의 전쟁을 정당화 시킨

---

*of Beliefs & Values*, Vol. 32. 2 (August 2011), 149.

15) 위의 논문.

16) 이승규,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Sendung’의 선교 철학적 분석: 에이전시 신학의 성경적 근거,” 『선교신학』 57집(2020), 194.

17) Bernard Williams, *Problem of the Self: Philosophical Papers 1956-197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64.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십자군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당시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것은 사회, 문화의 변화가 인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반증이다.

모던 사회에서 행동은 인간 주체에 의해서 주도되고 판단되고 평가되었다. 합리적인 사고는 합리적인 행동을 유발하였고 민족국가의 이데올로기는 시대의 행동 규범을 만들고 이를 따르게 하였다. 진리에 대한 확신과 정치 엘리트의 확실성에 근거하여 세상이 움직여졌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절대 권력에 따른 행동 또한 정당화될 수 있었다. 또한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의 이원화된 행동도 어느 정도 수용되어졌다. 전쟁과 파멸이 바로 그 시대 이데올로기에 의해 진행되었다. 주체의 정신적 구조에 의해서 행동들은 원인과 결과의 형태를 띠고 자연스럽게 나타난 시대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사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절대주체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행동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의 잔재들은 너무 비극적이었고 그 중심에 있는 인간자체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정당화되었고 변두리에서 행해진 행동들이 사회에서 서서히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중심에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행동하는 그룹들은 변두리에서 행동하는 이들에 의해 광신적인 집단으로 매도되기 십상이었다. 매사에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지식과 불확실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행동이 움직여지고 문화가 형성되었다.

리모더니티스 사회에 접어들어서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가 융화되어 결국에는 진리가 재구성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행동이 유발된다. 즉 리모더니티스 사회에서는 절대적 진리가 주는 보편적인 인식 구조와 상대적 진리가 주는 특수성이 균형을 이룬다. 또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

서 위로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주체에서 객체로, 객체에서 주체로의 양방향 행동이 자연스럽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sup>18)</sup> 그리고 합리성과 비합리성이 혼재되어 문화, 예술 혹은 종교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포스트모던에서 희미하게 지워져 가던 주체성은 다시 나타나서 주관적인 행위가 정당화되고 주체에서 객체로 가는 행위가 분석되고 평가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리모더니티스 사회에 서 있다. 거기서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윤리적인 인식 구조와 행동 방향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 문화 이동 가운데 서있는 공공신학과 에이전시 이론으로 광장 집회를 분석해 보자.

### III. 광장 집회의 분석 도구로서 공공신학과 에이전시 이론

이 장에서 다루는 광장 집회는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에 국한하겠다. 먼저, 필자는 이 두 광장 집회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사회 과학적 방법론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공공신학과 에이전시 신학적 방법론의 분석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공공신학은 광장이라는 공적 장소를 중요시하고, 에이전시 신학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행동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18) 과학 신학자 폴킹혼은 인간과 신과의 관계에서 주체이신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가는 행위(up-down agency)와 객체인 세상에서 주체인 신에게로 가는 행위(bottom up agency)를 과학적 시대를 살고 있는 세속 사회의 세대들에게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과학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참고하라. John Polkinghorne, *Quarks, Chaos, and Christianity: Questions to Science and Religion* (London: Triangle, 1994), 69. & John Polkinghorne, *Faith, Science & Understanding* (London: SPCK Press, 2000), 204.

## 1. 광장집회에 대한 공공신학적 접근 방식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리모더니티스 사회와 문화를 만들며 살고 있다. 공공신학은 이러한 포스트모던 이후 문화 흐름 속에서 발전된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모던 사회에서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발전시켰다고 한다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진리의 상대성과 개인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고 지적했다. 리모더니티스 사회에서는 개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공공의 자리에서 보편성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공공신학자,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는 공공신학은 열린 세계화 시대에 “공공의 삶에 관하여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 세계적이고 에큐메니칼하며 보편적인 접근방식을 찾아야한다”<sup>19)</sup>고 하였다. 반면에 최경환은 남아공 신학자들인 그루치(John W. de Gruchy), 꾸프만(Nico Koopman) 그리고 말루레케(Tinyiko S. Malualeke) 등을 예로 들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역사 상황을 무시한 공공신학은 의미 없다고 보고 공공신학의 보편성을 반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sup>20)</sup> 공공신학에 대한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 또한 보편성과 특수성이 서로를 보충해 주며 나아가야 한다는 리모더니티스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임성빈이 “공공신학은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책임적 응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맥락적이어야 하지만, 그 신학의 지향성은 이웃 사랑의 실천과 같이 보편적이어야 한다”<sup>21)</sup>고 지적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진리에 대한 보편성의 강조뿐 아니라 보편성과 특수성

19) Max L. Stackhouse, “God and Globalization,” 이상훈 역, *새세대 교회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14.

20) 최경환,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과 공공신학,” 『기독교철학』 19권(2014): 189-221.; John W. De Gruchy, “From Political to Public Theologies: The Role of Theology in Public Life in South Africa,” ed. William F. Storrar & Andrew R. Morton, in: *Public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London: T & T Clark, 2004), 45.

21) 임성빈,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17), 71.

의 상호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바로 공공신학은 리모더니티스의 현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공공신학은 성경과 전통, 이성과 경험 등 4가지 기준들을 공적인 영역에 적용한다.<sup>22)</sup> 거기서 창조와 해방, 소명과 언약, 도덕법과 죄, 자유 그리고 교회론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거한 공공신학의 원리들이 도출된다.<sup>23)</sup> 이런 공공신학의 원리들은 노예 반대운동, 잔인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 법에 대한 거절, 그리고 문화의 변혁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기독교 사회학이 지향해야 할 여러 주제들로 확장될 수 있다.<sup>24)</sup> 문시영은 공공신학의 필요성의 근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기독교 신앙이 그 본성상 공적이라는”데 있고 둘째는 “기독교 신앙이 공공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sup>25)</sup>는 점에 있다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신학은 지구적 시민사회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실천 방안을 제시할 뿐더러 지향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신학의 주된 방법론은 무엇인가? 문제해결을 위해 전통 교회가 해왔던 것은 구체적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성경에서 처방을 찾아 교회 성도들에게 행동지침을 주면서 간접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공공신학에서는 모든 사회 이슈들을 교회 내부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 공론의 장에 가져와서 서로 다른 그룹들과 견해들을 나누며 소통하며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sup>26)</sup> 이를 위해서 공론의 장이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야 하고 그 어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

22)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5.

23) 위의 책, 34.

24) 위의 책, 50.

25) 문시영, “공공신학 실천을 위하여: 공-사의 이분법을 넘어서,” *세세대 교회연구소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46.

26) 이장형, “세계화 문제에 관한 공공신학적 성찰,” *세세대 교회연구소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64-65.

야 한다는 것이다.<sup>27)</sup> ‘공론의 장’은 공공 여론이 형성되는 장으로서 공공 선과 그 실천을 위해서 시민 사회의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석환은 새 물결 아카데미 강연에서 오늘 한국 사회를 복음화하는 데 공공신학은 하나의 선택 사항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교회는 시민사회의 공공을 위하여 공공선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공론의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sup>28)</sup>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공공선이 아닌 신학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동성애나 반공이나 친미, 친중과 같은 서로 다른 정치 신념들이 공론의 장에서 충돌할 경우이다. 임성빈은 “공론장이 시민 사회의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작용하는 듯 보이지만 합리적 이성의 사유가 가능하지 않거나, 담론에 다수로 참여하지 못하는 수많은 소수들에 대한 또 다른 차이와 배제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sup>29)</sup>고 하였다.

공공신학의 방법론으로 오늘 한국 사회를 양분시켰던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최경환은 “공론장은 거리시위라든가 촛불집회와 같이 광장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공적인 의견들을 함께 형성하고 표현한 것, 그리고 국가나 경제에 대한 저항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들어 있다”<sup>30)</sup>고 하였다. 그러나, 공론의 장에서 갈등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양 진영이 함께 모여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먼저 양 진영 갈등과 적대감을 조절할 통제탑이 없다. 집단 이기주의가 충돌할 경우 이를 중재하고 타협점을 제시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공론의 장은 광장집

27) 최경환,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과 공공신학,” 214-217.

28) 성석환, (2019. 4. 18), “공공신학과 한국 사회: 후기 세속 사회의 종교 담론과 교회의 공적 역할,” Youtube, 2019. 6. 14. ; 성석환, 『공공신학과 한국 사회: 후기 세속 사회의 종교 담론과 교회의 공적 역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29) 임성빈,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신학』, 28.

30) 최경환,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과 공공신학,” 189-221.

회처럼 거대 규모의 양 진영을 수용할 수 없다. 셋째는 인간 집단이 모이는 곳에는 힘이 작용하게 되어 있다. 과거에는 총칼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진행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거대 자본 권력이 변두리의 힘없는 자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up>31)</sup> 즉 공론의 장이 약자에게도 열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고려해 볼 때 또 한 번 약자들의 희생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공신학의 방법론으로는 광장집회에 대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공공신학은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 교회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공론의 장에서 갈등과 적대감을 가진 타자와 합의된 담론을 도출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프레이저(Nancy Fraser)가 공론의 장이라는 형식보다는 차라리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정당하다.<sup>32)</sup> 또한 성석환은 공론의 장에서 국가권력이나 특정 정치권력과 결탁되어 나타난 교회는 “공론장의 변화에 벗어나 분리되어 있다”<sup>33)</sup>고 비판한다. 이런 점 또한 공공신학의 방법론으로 광장 집회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물론 공공신학이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공론의 장’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광장 집회를 분석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넘긴다.

31)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지구촌화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그는 지구촌화에는 반드시 이기는 자와 잃는 자가 나타나는데 지금 세기는 거대 자본이 과거 제국주의처럼 횡포를 부린다고 하였다. 참고하라. Anthony Giddens, *Runaway World: How Globalisation is Reshaping our Lives* (London: Profile Books, 2002), 15-16.

32) Nancy Fraser, *Scales of Justice*, 김원식 역. 『지구화 시대의 정의』(서울: 그린비, 2011), 53-88.

33) 강계선, <http://www.catholicpress.kr/news/view.php?id=6163>

## 2. 광장집회에 대한 에이전시 이론적 접근 방식

에이전시 이론은 행동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 종합 평가하여 그 행동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그 정체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이론이다. 즉 행동이 어떻게 시민사회와 법과 정치로 나타났는지를 추적한다. 에이전시 신학은 에이전시 분석이론을 방법론으로 사용하여 세워진 신학이다. 따라서 에이전시 신학은 에이전시 이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정신현상학에서 의식이 노동을 통하여 외화(Entäußerung)되어서 구체적인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sup>34)</sup> 이러한 현실성(actuality)은 실행자인 에이전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sup>35)</sup> 포이에르바하는 인간의 유적 본질이 자기 투사과정을 통하여 종교로 나타났다고 보았다.<sup>36)</sup> 그에게 있어서 에이전시는 인간의 본질로부터 발원한다.<sup>37)</sup> 마르크스는 인간의 자기 활동이 노동이라는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sup>38)</sup> 그는 자본주의를 강화시키는 도구인 돈이나 상품, 그리고 기계가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활동하며, 자본가들의 에이전시임을 설명한다.<sup>39)</sup> 이러한 인간의 정신세계와

34) G. W. F. Hegel, *System der Wissenschaft: Erster Theil, die Phänomenologie des Geistes*, Johannes Hoffmeister (Bamberg und Würzburg: bey Joseph Anton Goebhardt, 1807; Verlag von Felix Meiner, 1952), 32, 347ff, 371, 378, 379, 413ff, 538, 541, 549ff.

35) G.W.F. Hegel, *The Jena System, 1804-5: Logic and Metaphysics*, John W. Burbidge and George di Giovanni (Kingston and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1986), 48.

36) Ludwieg Feuerbach, *Lectures on the Essence of Religion (1851)*, Ralph Manheim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1967), 19.

37) Ludwig Feuerbach, *Principles of the Philosophy of the Future (1843)*, Manfred Vogel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6), 11.

38) Karl Marx,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 of 1844," *Early Writings*: Introduced by Lucio Colletti, trans. Rodney Livingstone and Gregor Bent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327.

39) Karl Marx,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ume One, trans. Ben

구체적인 현실과의 관계성을 찾아 분석함으로써 에이전시 학자들은 인간 행동의 실체를 밝혀내었다. 그 구체적인 행위자나 실행자를 에이전트로 보고 그 에이전트들을 수학적, 기호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논리적인 연관성을 밝혀낸다.<sup>40)</sup> 그러므로 에이전시 이론은 과학적인 관찰과 논리적인 분석이 주요 관건이다. 왜냐하면, 행동을 유발시킨 인간 본성 안에 내재된 정신적 요소들은 사실상 쉽게 과학적으로 관찰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행동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행동의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다. 에이전시 이론은 사람의 행동이 무엇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인간 내적인 것과 사회와 문화의 구조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나타난다. 인간 내적인 요소들 중에는 계획, 야망, 의도, 목적, 신념, 믿음, 소망, 사랑, 성격, 인성, 의지 등이 있다. 외적인 사회 문화적인 요소 가운데는 사회법, 도덕법, 시대 이데올로기, 규칙, 신호, 시스템 등을 들 수 있겠다.<sup>41)</sup> 둘째로 어떤 행동은 다른 행동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연달아 일어나기도 하고 학습에 의해서, 작용과 반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행동을 유발시키고 지속시키는 요인들은 에이전트에 의해서 규명되어진다. 그래서 골드만은 지적하기를 에이전트는 "행동의 저자이며, 원천이며, 창발자이다"<sup>42)</sup>라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에

---

Fowkes (London: Penguin Books, 1988), 180.

40) 참고하라. R. Hilpinen, "On Action and Agency," Ejerhed, E., Lindstrom, S. (eds.) *Logic, Action and Cognition: Essays in Philosophical Logic*. (Kluwer: Dordrecht, 1997).

41) 참고하라. Robert Demolombe, "Relationships between Actions Performed by Institutional Agents, Human Agents or Software Agents," eds. G. Governatori and G. Sartor, *DEON* (2010), *LNAI*, Berlin Heidelberg 6181, 259-273, (Berlin Heidelberg: Springer-Verlag, 2010).

42) Alvin I. Goldman, *A Theory of Human Action* (New Jersey: Prentice-Hall Inc.,

이전트들은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며 주체에서 객체로 움직여지는 과정을 밝히며 그러한 행위로 드러나는 정체를 규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에이전시 이론이 광장 집회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자. 먼저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는 집단행동이다. 계획되어지고 의도된 행동이고, 각자의 신념과 믿음을 드러낸 행동이다. 또한 각자의 비전과 야망에 근거한 행동이며, 인간의 정신적인 요소 이외의 외적인 문화나 정치적인 이유들이 담겨있는 행동이다. 하나의 행동이 또 다른 행동을 일으키면서 집단행동으로 확장해나가기도 한다. 에이전시 이론은 공공신 학과는 달리 공론의 장에서 어떤 담론을 도출하려고 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들이 보여준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행동을 분석하고 그 행동들이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바라보면서 성숙한 시민 사회를 위해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지를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광장 집회를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 IV. 광장 집회에 대한 에이전시 신학적 분석: 광화문 집회: 태극기 집회(2019.10.3, 2020. 2.22)와 서초동 집회: 촛불 집회(2019. 9.28)

##### 1. 광장 집회 행동에 대한 에이전시 이론적 분석

###### 1) 행동의 조직

일단 대규모 집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주최 측은 계획서대로 먼저 장소를 정하고 집회 허가를 받기 위해서 관할청에 신청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모이는 인원수를 예상하고 인원 동원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고 각 지역 에이전트와 각 단체에 하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

1970), 84.

집회 때 발언할 강사를 정하고 구체적인 시간계획과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계획은 행동 전체를 조직하며 행동의 길잡이가 된다.**<sup>43)</sup> 광화문 모임이 처음 모임부터 마지막 해산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는지는 나타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현 대통령에 대한 한층 강해진 증오를 보여주었고 광장 기물 파손 등은 그들이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행동했다고 볼 수 없다.<sup>44)</sup> 이에 반해, 서초동 모임에서 그들의 행동은 상대적으로 질서와 계획대로 무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2) 숨겨진 목적의 파악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sup>45)</sup> 두 집회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 대중 가운데 나타난 목적과 의도는 모이는 장소와 집회 때 자주 외치는 구호에 나타나 있다.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는 광화문 집회(2019.10.3.)에서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자유 민주주의 수호’, ‘조국 구속과 문재인 정권 심판 및 퇴진’이었다.<sup>46)</sup> 이것이 그들이 모인 의도이며 목적이었다.<sup>47)</sup>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와중에 집회를 강행한 2020년 2월 22일 광화문의 주된 구호는 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며 그를 탄핵하는 것이었다.<sup>48)</sup> 반면에 검찰청사가 있

43) Seung Gyu Lee,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gency theology," (Dotoral diss. King's College London, 2015), 126.

44) '경찰 때리고 기물 파손' 46명 조사 ... 민감룡 "엄정 조치", JTBC 뉴스, 2019년 10월 4일.

45) 위의 논문. 참고하라. S. C. Coval and P. G. Campbell, *Agency in Action: The Practical Rational Agency Machine* (Dordrecht: Kluwer Academic, 1992), 5-6.

46) 성한용, "개천절 광화문 집회, 정치는 사라지고 증오만 가득했다", 『한겨레신문』 2019년 10월 3일. [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911930.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911930.html)

47) 김경호, "서초동 대 광화문식 세 대결은 안 된다", 『한겨레신문』 2019년 10월 3일. [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1916.html](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1916.html)

48) 정성조, "코로나 19 우려에도.. 범투본, 주말 광화문 집회 강행", 2020년 2월 22일. <https://news.v.daum.net/v/20200222/23342642>

는 서초동에서 이루어진 집회(2019.9.28.)는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외친 것은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이었다. 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함과 동시에 검찰 개혁이라는 과업을 성공시켜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을 세우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파악되는 의도와 목적 외에 숨겨진 의도와 목적도 존재한다.** 이 두 세력의 구호 모두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가 공통분모로 나와 있다는 점은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참여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보이는 두 집단의 구호가 공통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은 겉으로 외쳐진 구호 뒤에는 숨겨진 의도와 목적이 있으며 결국 이들이 다른 목적과 의도로 같은 구호를 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이전시 이론적 행동 분석은 그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 3) 믿음과 신념 동기

에이전시 신학자들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데 신념과 믿음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았다.<sup>49)</sup>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그들에게 있는 신념과 믿음이다. 어떤 신념인가?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표면적인 신념은 우리가 행동하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이런 신념은 반공과 친미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 그들의 신념은 태극기와 성조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대중 집회를 통해 응집된 여론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신념과 믿음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불이익이나 손실도 기꺼이 감당하게 한다. 반대로 서초동에 나온 이들의 신념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법적인 혐이

49) 위의 논문, 127.

있다 할지라도 검찰 개혁의 책임자를 지켜 자국의 가장 큰 적폐였던 검찰 개혁을 이루어 민주주의 국가로서 진일보하게 한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세월호를 경험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었다가 어이없이 모두 침몰당한 생명들을 목격한 자들이기에 자신들의 신념을 촛불이라는 기치 아래 모여 주장하고 관철시키고자 한다. 즉 능동적인 주체의 한사람으로서 광장에서 자신의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확인하고 공유한다.

#### 4) 비전과 욕망

행동이 하나로 집결되고 강화될 수 있는 것은 바라보는 비전이 선명하게 제시되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야망과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청와대를 향하여 행진하는 데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야망과 소망이 있다.** 확정기를 크게 틀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는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행동은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자신이 하고자 하고 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sup>50)</sup> 그 열망은 자신들 안에 있는 의지를 강하게 하고 때론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나게 할 때도 있다. 대형 집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힘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침묵하며 지켜보는 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 함께 행동하게 하려는 그들의 바람이 광장 집회에 녹아져 있다. 반면에 서초동에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대검찰청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외친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의 연대가 검찰들의 횡포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하다. 민주 검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0) 위의 논문, 126-127.

### 5) 타 행동에 의해서 유발된 행동

**내적 요소에 의해 유발된 행동은 또 다른 외적 행동을 낳을 수 있다.** 광화문 광장집회로 사람들이 결집하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시킨 촛불집회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기서 결집된 대중의 힘을 경험했다.<sup>51)</sup> 이는 한기총의 조직적인 참여 독려와 함께 그들이 행동으로 나선 외적인 이유들 중의 하나일 수 있다.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던진 전허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가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행동이 다른 행동에 불을 붙이는 경우이다. 반면에 서초동에 사람들이 모여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며 행동하도록 한 외적인 요소들은 무엇인가? 보수 세력들의 집단행동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던 개혁에 대한 위기감이 모임 결집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듯하다. 더 나아가 촛불집회를 통해 의사반영을 했던 광장 집회라는 문화적 시스템이 그들을 불러들인 외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

### 6) 행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

**마지막은 반성적 성찰을 통한 자신들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이전시 이론은 행해진 모든 행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준거틀을 준다.<sup>52)</sup> 즉 반복된 행동으로 드러난 정체성이 자신들의 계획과 의도를 제대로 발현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019년 10.3 광화문 집회는 비록 일부였다 할지라도 폭력적인 행동을 수반한 반민주주의적인 투쟁이었다.<sup>53)</sup>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치는 자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51) 양상훈, “2016 박 탄핵 촛불 때 나온 2019 광화문 예언”, 『조선일보』 2019년 10월 31일.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0/2019103003133.htm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0/2019103003133.html)

52) Seung Gyu Lee,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gency theology,” 284-285.

53) 권유진, 김민욱, “행진 막는 경찰에 폭력 행사 46명 연행되기도”, 『중앙일보』 2019년

모순이다.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신들의 의도와 신념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인 것이다. 2020년 2월 22일 집회 강행은 무모함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불모로 자신의 계획과 야망을 채우려는 신천지와 별반 다름이 없는 광신적 행동이다. 코로나19가 더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대중 집회를 자중하여야 할 지도자가 대중 선동을 하는 것은 합리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다. 서초동 집회는 어떤가? 촛불을 들고 그들이 행한 행동들은 비판받을만한 것은 없었는가? 대체로 그들의 집회는 질서가 있었다. 시민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혹시 보수집회를 폄하하지는 않았는가? 그들을 향해 생각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지는 않았는지 반성적 고찰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민주적 포용성을 저버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두 집회에 대한 에이전시 신학적인 조망

1) 에이전시 신학은 양극단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찾는 신학이다. 상대와 절대, 초월과 내재, 좌파와 우파까지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본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연결신학이라고 부른다. 필자는 에이전트들의 집합으로서 두 광장 집회가 적대적 대결 양상을 가지면서 진영 문화를 만들어내는 허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표면상 드러난 그들 모두 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이다. 그들 모두 독재타파와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고 그 가치에 대해 긍정한다. 만일 진정으로 그들이 그런 대의적 목적 가지고 있다면 서로 함께할 수 있다. 비록 그런 목적을 이루는 처방이 정반대일지라도 그 갈등은 하나의 합을 향해 갈 수 있다.

---

10월 3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594469>

포이에르바하는 “참된 변증법은 독백이 아니고 대화이다”<sup>54)</sup>고 주장하였다. 서초동 집회에서의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는 광화문에서의 정권심판과 조국 퇴진과 정반대이다. 즉 정과 반의 대결이다. 둘 다 독백으로 끝나면 서로의 갈등과 원한의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두 주장이 독백으로서가 아니라 대화로 충돌될 때 역사를 추진해나가는 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대화의 합은 결국 관계성 속에서 유추되어야 건강한 합을 이룰 수 있다. 독백과 같은 강한 이데올로기적인 **강 대 강 대립**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서로 간의 대화의 장에서 반성적 성찰**로 바뀌어야 한다. 바로 거기에 진실보한 광장 여론이 형성이 되며 한층 더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이 있게 될 것이다.

2) 에이전시 신학은 중재와 화해 그리고 서로간의 소통 및 연결을 위해 행동하는 신학이다. 그래서 필자는 에이전시 신학은 행동 신학이라고 명명한다. 행동은 살아있음의 정체이다. 살아서 하는 반복된 행동은 자신의 정체(Identity)가 누구인지를 구체화한다. 반복된 행동의 합은 긍정적 자기 형성이든지 부정적 자기됨으로 나타난다. 행동의 한 정점에서는 행위자는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 그 정체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광화문과 서초동의 행동 대결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전쟁이 아니다. 거기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다만 자신들의 행동이 긍정적 정체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부정적 정체로 드러나느냐의 문제이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행동을 만들고 책임지는 에이전트들이다. 그들 모두는 광장 앞에 세워진 에이전트들이다. 관객들은 지지를 보이기도 하고 야유를 보내기도 한다. 에이전시 신학은 그들 행동이 그들 됨을

54) Ludwig Feuerbach, *Principles of the Philosophy of the Future (1843)*, trans., Manfred Vogel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6), 72.

보여주는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그리하여, 자기 행위에 대한 반성적 비판을 통하여 역사와 민족 앞에 건설적인 에이전트로 행동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3) 에이전시 신학은 에이전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사도적 신학이다. 사도성은 세상 속에서 교회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지 그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점이다. 모든 행동이 자유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될 수 없다. 에이전시 신학은 무정부적으로 흐르는 것을 인간 자유 쟁취를 위한 이상적인 행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국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외친 광화문 집회와 조국 옹호 및 검찰 개혁을 외친 서초동 집회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당리당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일반 대중이 긍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평가가 가능한가? 거기엔 사회과학적, 신학적, 철학적 많은 방법들이 있다. 여기에서 제시한 에이전시 이론으로 분석한 방법론은 그러한 학문적인 평가들 중의 하나이다. 필자는 에이전시 이론에 의해서 분석 평가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그들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각 신문 기자나 각 방송사 PD들이 에이전시 신학적 분석 및 견해를 제공하지는 못할지라도 철학적 행동분석 방법인 에이전시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광장집회를 분석 평가하여 보도할 수 있다면 광장 집회는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이 훨씬 덜 불쾌하고 덜 짜증을 내는 성숙한 광장 집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V. 나가는 말

우리는 우리가 활동하는 광장 곳곳에서 아우성치는 소란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는 양극단에 서서 서로 공격하고 혐오하는

갈등 사이를 지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모델인지를 질문할 수 있다.

공공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고 누구나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면에 누구든지 와서 쉬고 산책하고 교체하고 서로 방해받지 않을 대중문화 공간이기도 해야 한다.

포스트모던 문화의 약점을 극복하고 리모더니티스 사회 문화 패러다임으로 가는 민주 시민 사회에서 광장 집회를 이끄는 자들은 가끔이라도 거기에 전혀 관심 없고, 그룹에 끼어 들어가기 싫어하는 오늘날 조용한 세대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비록 그들이 소수이든 다수이든 함께 사용하는 그 공간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독차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에이전시 신학은 건전하고 더욱 성숙한 시민 사회를 향한 광장 집회를 위한 행동 지침을 줄 수 있다. 바로 다음의 세 가지 질문 앞에 서는 것이다. 먼저 쌍방 간의 연결 차원에서 소통과 중재, 그리고 화해의 길을 여는 집회인가? 둘째는 드러난 행동이 자신들의 요구와 의견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행동이 정의롭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실행하였다고 평가하는가?

광장 집회에 대한 이러한 행동지침은 현재 우리 사회의 분파주의적이고 적대적인 불통을 만들어내는 원인과 의도를 탈피하게 해서 사회의 단편들을 통합하고 사람 살만한 문화 공간을 창출해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문시영, “공공신학 실천을 위하여: 공-사의 이분법을 넘어서.” *새세대 교회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 성석환, 『공공신학과 한국 사회: 후기 세속 사회의 종교 담론과 교회의 공적 역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이승규, “에이전시 신학의 가능성 연구.” 『선교신학』 제 54집(2019): 241-280.
- \_\_\_\_\_,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Sendung’의 선교 철학적 분석: 에이전시 신학의 성경적 근거.” 『선교신학』 57집(2020): 193-230.
- 이장형, “세계화 문제에 관한 공공신학적 성찰.” *새세대 교회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 임성빈,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17.
- 최경환,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과 공공신학.” 『기독교철학』 19권(2014): 189-221.
- Fraser, Nancy. *Scales of Justice*, 김원식 역. 『지구화 시대의 정의』. 서울: 그린비, 2011.
- Stackhouse, Max L. “God and Globalization,” 이상훈 역. *새세대 교회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 Alexander, Jeffrey C. “Modern, Anti, Post and Neo.” *New Left Review*. Vol. 210 (1995): 63-101.
- Archer, Margaret S. *Being Human: The Problem of Agen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Barker, Chris. *Cultural Studies: Theory and Practice*. London: Sage, 2005.
- Barth, Karl. *Protestant Theology in the Nineteenth Century: Its Background & History*. Brian Cozens & the Staff of S. C. M. Press and John Bowden. London: S. C. M. Press, 1972.
- Bauman, Zygmunt.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2000.
- Beck, Ulrich.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trans. Mark Ritter. London: Sage, 1992.

- Beck, Ulrich and Cristoph Lau, "Second Modernity as a Research Agenda: Theoretical and Empirical Explorations in the 'Meta-Change' of Modern Socie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56.4, (2005).
- Beck, Ulrich and Edgar Grande, "Varieties of Second Modernity: the Cosmopolitan Turn in Social and Political Theory and Research."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61,3 (2010): 409-43.
- Branzi, Andrea. *Learning from Milan: Design and the Second Modernity*. Cambridge, MA: MIT, 1989.
- \_\_\_\_\_. *Weak and Diffuse Modernity: The World of Projects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Milan: Skira, 2006.
- Coval, S. C. and P. G. Campbell, *Agency in Action: The Practical Rational Agency Machine*. Dordrecht: Kluwer Academic, 1992.
- Feuerbach, Ludiwig. *Lectures on the Essence of Religion (1851)*. Ralph Manheim,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1967.
- \_\_\_\_\_. *Principles of the Philosophy of the Future (1843)*. Manfred Vogel.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6.
- Foucault, Michel. *The Order of Things: An Archaeology of the Human Science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1970.
- Giddens, Anthony. *Runaway World: How Globalisation is Reshaping our Lives*. London: Profile Books, 2002.
- Goldman, Alvin I. *A Theory of Human Action*.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0.
- Gruchy, John W. De. "From Political to Public Theologies: The Role of Theology in Public Life in South Africa," ed, William F, Storrar & Andrew R, Morton. *Public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London: T & T Clark, 2004.
- Hegel, G. W. F. *System der Wissenschaft: Erster Theil, die Phänomenologie des Geistes*. Johannes Hoffmeister. Bamberg und Würzburg: bey Joseph Anton Goebhardt, 1807; Verlag von Felix Meiner, 1952.
- \_\_\_\_\_. *The Jena System, 1804-5: Logic and Metaphysics*. John W. Burbidge and George di Giovanni. Kingston and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1986.

- Hilpinen, R. "On Action and Agency." Ejerhed, E. & Lindstrom, S. *Logic, Action and Cognition: Essays in Philosophical Logic*. Kluwer: Dordrecht, 1997.
- Klotz, Heinrich. *Kunst im 20. Jahrhundert: Moderne-Postmoderne-Zweite Moderne*. Munich: Beck, 1994.
- Lee, Seung Gyu.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gency theology," Doctoral diss. King's College London, 2015.
- Marx, Karl.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ume One, trans. Ben Fowkes. London: Penguin Books, 1988.
- \_\_\_\_\_.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 of 1844.," *Early Writings: Introduced by Lucio Colletti*. trans. Rodney Livingstone and Gregor Bent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 Polkinghorne, John. *Faith, Science & Understanding*. London: SPCK Press, 2000.
- \_\_\_\_\_. *Quarks, Chaos, and Christianity: Questions to Science and Religion*. London: Triangle, 1994.
- Stackhouse, Max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 Vincent, Markus. "Re-Modernities: or the Volcanic Landscapes of Religion." *Journal of Beliefs & Values*. Vol. 32. 2 (August 2011), 143-160.
- \_\_\_\_\_. "Re-modernity': Overcoming the Divide of Denominations, Religions and Ideological Categories." Jürgen Court and Michael Klöcker (eds.), *Wege und Welten der Religionen: Forschungen und Vermittlungen*. Frankfurt: Verlag Otto Lembeck, 2009.: 635-45.
- Williams, Bernard. *Problem of the Self: Philosophical Papers 1956-197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 ‘경찰 때리고 기물 파손’ 46명 조사 ... 민감룡 “엄정 조치”, JTBC 뉴스. 2019년 10월 4일.
- 권유진 김민욱, “행진 막는 경찰에 폭력 행사 46명 연행되기도”, 『중앙일보』. 2019년 10월 3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594469>
- 김경호, “서초동 대 광화문’식 세 대결은 안 된다”, 『한겨레신문』. 2019년 10월 3일.

[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1916.html](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1916.html)

성석환, (2019. 4.18), “공공신학과 한국 사회: 후기 세속 사회의 종교 담론과 교회의 공적 역할” Youtube. 2019년 6월 14일.

성한용, “개천절 광화문 집회, 정치는 사라지고 증오만 가득했다”, 『한겨레신문』, 2019년 10월 3일. [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911930.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911930.html)

양상훈, “2016 박 탄핵 촛불 때 나온 2019 광화문 예언”, 『조선일보』, 2019년 10월 31일.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0/2019103003133.htm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0/2019103003133.html)

정성조, “코로나 19 우려에도 범투본, 주말 광화문 집회 강행”, 2020년 2월 22일. <https://news.v.daum.net/v/20200222/23342642>  
<http://www.catholicpress.kr/news/view.php?id=6163>

논문투고일: 2020년 02월 29일

심사개시일: 2020년 03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04월 18일

---

• 국 문 초 록 •

---

이 소고에서 필자는 양 진영으로 나누어진 광화문 집회(2019.3.1/2020.2.22)와 서초동 집회(2019.2.28)를 에이전시 신학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신문기자나 TV 리포터들이 그들의 행동을 진영논리에 의해서 해석하여 여론을 호도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좀 더 성숙한 시민사회와 건강한 광장 문화 형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분석 방법이 요청된다. 에이전시 방법론은 광장 집회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합리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에이전시 이론은 리모더너티스 시대에 나타난 주체적 시민행동을 객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객관화를 통해 행위자는 자기반성적 숙고를 할 수 있고 좀 더 성숙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행위의 객관화를 통해서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은 해석된 진영 이데올로기에 벗어나서 윤리적이고 합리적 사고로 광장 집회를 바라볼 수 있다. 필자는 이 소고에서 분열된 시민의식을 중재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연결 신학과 행동이 다른 행동을 견제하며 옳은 시민 행동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행동 신학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사도적 신학이 에이전시 신학임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공공신학, 에이전시 신학, 연결 신학, 행동 신학, 사도적 신학, 포스트모더니즘, 리모더너티스

---